

---

# 주요국 예산안 - 영국

## [Budget 2020]

---

2020. 5.

동 보고서는 2020년 3월 11일에 영국 재무부(HM Treasury)가 발표한 2020 예산안(*Budget 2020*)과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원문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 연구책임자

김현아 재정정책연구본부장  
송경호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한혜란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	1
가. 경제전망 .....	1
나. 재정전망 .....	3
2.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 .....	5
3. 예산안 주요 내용 .....	9
가. 수입 .....	9
나. 지출 .....	14
4. 주요 재정정책 .....	18
가. 2020 예산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정책 .....	18
나. 인프라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Level up) .....	22
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	24
라. 재정건전성 관리 .....	26

## 영국 개황1)

□ FY2020-21 : 2020년 4월 ~ 2021년 3월

□ 출처 : HM Treasury, Budget 2020, 2020.3.

HM Treasury, Budget Speech 2020, 2020.3.11.

HM Treasury, Budget 2020: What you need to know, 2020.3.11.

HM Treasury, Chancellor delivers Budget 2020, 2020.3.11.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 환율 : 1파운드 = 약 1,487.83원(2019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9년 경상GDP 3조 2,141억 달러(우리나라 약 1.4배 수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19년 기준 64.3%(우리나라 78.7%(2018년 기준))

□ 인구 : 6,683만명(2019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자료 : OECD.Stat 2020.4.26. 추출(<https://stats.oecd.org/>)

1) 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규모, 수출입의 대GDP 비율, 인구, GDP는 OECD Stat(2020.4.26. 추출, <https://stats.oecd.org/>) 기준

<요 약>

□ 경제·재정전망

\*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발표되어 코로나 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가정하에 추계

- (경제전망) 영국의 GDP 성장률을 2020년 1.1%, 2021년 1.8%로 전망
- (재정전망) FY2020-21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재정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2.4%,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77.4%로 전망

□ (예산기조) 예산책임청은 2020 예산안에 대해 1992년 3월 예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 확대 조치를 제시하였다고 평가

- (정책 방향)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조치와 함께 미래의 번영을 위한 예산\*을 제시
  - \*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지역균형 발전 및 인프라 투자, 국민·가계 지원, 기업 지원, 혁신을 위한 투자, 친환경 경제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둠

□ (수입·지출) FY2020-21 경상수입은 전년 대비 336억파운드 증가한 8,729억파운드(GDP 대비 37.9%), 총관리지출(TME)은 전년 대비 409억파운드 증가한 9,277억파운드(GDP 대비 40.3%)로 전망

-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FY2020-21에 179억파운드로 추계됨

□ 주요 재정정책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기업,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에서 120억파운드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
- (인프라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Level up)) 향후 5년간 영국의 도로, 철도, 디지털 네트워크 등에 약 6,400억파운드를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도 추진
-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강화를 위해 약 60억파운드 이상의 추가 자금을 제공
- (재정건전성 관리) 정부는 추후 '2020 포괄적 지출 검토(CSR)'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존 재정준칙 변경을 위한 검토도 추진 예정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
2019.2.11.	FY2018-19 추가경정예산안( <i>Supplementary Estimates 2018-19</i> ) 발표	2019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9.3.13.	<i>Spring Statement 2019</i> 발표	
2019.5.9.	FY2019-20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i>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19-20: Main Supply Estimates</i> ) 발표	
2019.5.23.	FY2017-18 결산보고서( <i>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18</i> ) 발표	
2019.7.18.	재정 리스크 보고서( <i>Fiscal risks report - July 2019</i> ) 발표	2019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9.9.4.	<i>Spending Round 2019</i> 발표	
2019.12.16.	국가통계 개편에 따른 2019년 3월 재정 전망치 수정 발표	
2019.12.19.	복지지출 보고서( <i>Welfare trends report - December 2019</i> ) 발표	
2020.2.12.	FY2019-20 추가경정예산안( <i>Supplementary Estimates 2019-20</i> ) 발표	2020년 2월 2호 재정동향
2020.3.11.	2020 예산안( <i>Budget 2020</i> ) 발표	2020년 3월 1호 재정동향
2020.4.14.	예산책임청, 코로나 19의 경제·재정 시나리오( <i>Coronavirus reference scenario</i> ) 발표	2020년 4월 1호 재정동향

당초 영국 예산안은 2019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2019 조기 총선 추진으로 예산안 발표 일정을 2020년 봄으로 연기한 바 있음.

2020년 3월 11일, 재무부가 Budget 2020을 발표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 1. 경제 및 재정전망<sup>2)</sup>

※ OBR은 ‘2020년 3월 경제전망’에 대해 예산안 발표 2주 전에 전망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코로나 19 확산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 확산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가정하에 추계되었음을 강조함

### 가. 경제전망

<표 1> 주요 경제전망

(단위 : %, 전년 대비 % 변화)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질GDP성장률	1.3	1.4	1.1	1.8	1.5	1.3	1.4
(2019년3월 전망대비 변화%p)	(-0.1)	(0.2)	(-0.4)	(0.2)	(-0.1)	(-0.3)	-
- 가계소비	1.6	1.3	1.1	1.2	1.2	1.4	1.4
- 일반정부소비	0.4	3.6	3.7	2.8	2.1	1.9	2.2
- 기업투자	-1.5	0.3	0.0	1.8	3.0	2.4	2.3
- 일반정부투자	1.3	2.1	1.9	10.9	4.6	1.8	1.2
- 순수출 <sup>1)</sup>	-0.2	0.0	-0.1	-0.3	-0.2	-0.4	-0.3
소비자물가(CPI)상승률	2.5	1.8	1.4	1.8	2.1	2.1	2.0
고용(백만명)	32.4	32.8	33.0	33.1	33.2	33.3	33.4
평균 임금 상승률	3.3	2.8	3.3	3.6	3.4	3.1	3.1
실업률(LFS)(%)	4.1	3.8	3.8	3.8	3.9	4.0	4.1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Table 1.1, 2.8 일부 발췌.

□ (경제성장률) 예산책임청(OBR)은 2020년 영국의 GDP 성장률을 2019년 봄 전망치 (1.4%) 대비 하향 조정한 1.1%로 전망

○ 재정 확대로 일부 영향이 상쇄되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제 전망 악화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1%로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

2) 출처: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 재정 확대의 영향이 정점에 이르는 2021년에 GDP 성장률이 1.8%로 증가하고 이후에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2024년에는 1.4%를 기록할 전망
- (지출 요소별 전망) 공공지출 급증으로 올해와 내년도 일반정부 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절반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되고, 브렉시트 불확실성으로 인한 2019년의 기업 투자 약세가 2020년에도 계속될 전망
  - 2020년 정부소비의 연간 실질 증가율은 3.7%로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정부투자도 전망기간 동안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2021년(약 11% 증가(실질 기준))에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높아진 무역 장벽으로 인해 전망기간 동안 수출은 3.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 19의 영향) 예산책임청(OBR)은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며, 일시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혼란(disrup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일시적인 노동공급 축소, 글로벌 공급망 중단으로 영국의 생산 능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영국 경제는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소비 지출 및 기업 투자 감소, 수출 수요 약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3월 전망에서는 코로나 19가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국가에는 제한적으로 확산된다는 가정 하에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 영국 GDP 성장률이 0.1%p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함
- (노동시장) 실업률은 지난 4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도 균형실업률(4.0%)을 약간 하회하는 3.8%를 유지할 전망
  - (실업률) 단기에는 재정 확대로 인해 실업률이 다소 하락하고 이후 성장 둔화로 다시 상승할 전망
    - 법정생활임금 인상이 균형실업률에 미치는 점진적인 영향으로 전망 기간 동안 실업률이 다소 상승

- (고용) 전망 기간 동안 전체 고용이 약 520,000명 이상 늘어나지만 사실상 대부분 정부 고용 증가로 인한 것임
  - (임금) 예산 패키지의 영향으로 임금 증가율은 점차 증가해 2021년에 3.6%를 기록하고, 이후 증가세가 완화되어 중기적으로는 3%를 약간 상회할 전망
- (물가) CPI 인플레이션은 2020년 1.4%로 전망되며 2022년은 2.1%로 전망
- 에너지 요금 상한<sup>3)</sup> 인하 발표 등의 영향으로 CPI 인플레이션은 2020년 1분기 1.8%에서 2분기 1.2%로 하락할 전망
  - 주세 및 연료세 동결, 법정생활임금 인상 등 정책 조치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정 확대는 생산(output)이 잠재 수준을 상회하도록 하여 CPI 인플레이션이 2021년 말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게 높아질 전망

## 나. 재정전망

- 재정적자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 FY2019-20에 2.1%였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이 FY2020-21에 2.4%, FY2021-22에 2.8%로 상승한 후 FY2022-23부터 점차 감소할 전망
    - 2019년 3월 기준 전망과 비교해 전망기간 동안 주로 부처의 지출 증가로 인해 순차입이 대폭 상향 조정됨(브렉시트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절감과 일부 조세 정책 등은 순차입 증가를 일부 상쇄)
    - 재정 확대로 인해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21-22까지 667억파운드(GDP 대비 2.8%)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4-25에 579억파운드(GDP 대비 2.2%) 수준을 기록할 전망
    - \* 당초 2019년 3월 기준 전망에서는 FY2019-20 재정적자가 476억파운드에서 FY2023-24에 333억파운드로 감소할 전망이었음
  - (경상예산수지) 경상예산수지는 FY2001-02년 이후 FY2018-19에 처음으로 흑자

3) 영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너지 요금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전력 시장 규제국(Ofgem)은 에너지 공급 가격과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표준 요금제의 요금 상한을 발표함

를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경상예산 흑자 비율은 FY2020-21에 0.2%, FY2021-22에 0.1%로 나타날 전망

- FY2021-22 이후부터 경상예산 흑자 비율이 점차 높아질 전망

□ 국가채무 전망

○ (공공부문 순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0-21에 77.4%로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2019년 3월 기준 전망 대비 0.8%p 하향 조정)

- 이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3-24까지 점차 상승하고 FY2024-25에는 다소 하락한 75.2%를 기록할 전망

- 전망 기간 동안 공공부문 순채무 금액은 예산 패키지로 인한 차입 증가, 자산 매각 지연 및 취소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월 기준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됨

<표 2> 주요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대비 %, %)

	실적	전망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b>세입·세출</b>							
공공부문 경상수입(a)	37.5	37.7	37.9	38.0	38.3	38.4	38.5
총관리지출(TME)(b)	39.3	39.8	40.3	40.8	40.8	40.8	40.7
공공부문 경상지출(c)	35.0	35.3	35.4	35.7	35.6	35.5	35.4
공공부문 순투자(d)	2.0	2.2	2.6	2.9	3.0	3.0	3.0
감가상각(e)	2.3	2.2	2.3	2.3	2.3	2.3	2.3
<b>기존에 법제화된 재정 목표</b>							
공공부문 순차입	1.8	2.1	2.4	2.8	2.5	2.4	2.2
공공부문 경기조정 순차입	1.9	2.2	2.4	3.0	2.7	2.5	2.2
공공부문 순채무	80.6	79.5	77.4	75.0	75.4	75.6	75.2
<b>2020 예산의 재정 목표</b>							
경상예산적자	-0.3	-0.1	-0.2	-0.1	-0.5	-0.7	-0.8
공공부문순투자	2.0	2.2	2.6	2.9	3.0	3.0	3.0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4.1	3.8	3.3	3.5	3.3	3.1	2.9
<b>안정성장협약(SGP) 기준</b>							
일반정부 적자 <sup>1)</sup>	1.8	2.2	2.5	3.1	2.6	2.4	2.4
경기조정 재정적자 <sup>1)</sup>	1.9	2.3	2.5	3.3	2.8	2.5	2.4
일반정부 채무 <sup>1)</sup>	84.1	83.2	82.9	83.2	83.3	83.3	83.0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Table 1.2, 3.40* 일부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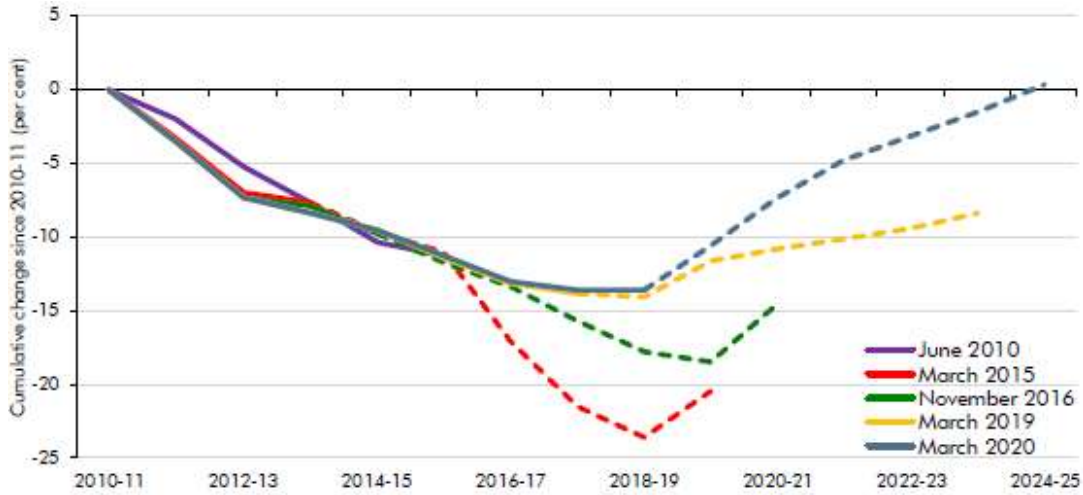
## 2. 예산기조 및 정책 방향

- (재정기조) 예산책임청은 2020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1992년 3월 예산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재정 확대(fiscal loosening) 조치를 제시하였다고 평가4)
- 영국 정부는 재정 상황 개선과 낮은 차입 비용으로,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과 코로나 19 대응 조치를, 중기적으로 성장 촉진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함5)
- GDP 대비 재정적자는 FY2009-10에 10.2%에서 FY2018-19에 1.8%로 감소하여 2010년 이래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왔음
- 정부 차입 이자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재정수입 대비 채무 비용 비율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임
- 예산책임청은 재정 완화 조치의 주요 요인을 부처 지출(경상 지출과 자본지출) 계획의 상당한 증가로 분석
- (경상지출) FY2010-11부터 8년 동안 이루어진 중앙정부 부처 경상지출(1인당 실질 지출 기준) 감소가 FY2024-25에 완전히 회복되며 이러한 변화의 약 절반이 올해와 내년에 이루어질 전망
- (자본지출)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추가 투자 제고 조치를 반영 시, 부처 자본지출(1인당 실질 지출 기준)이 FY2024-25에 FY2010-11 대비 약 35% 높게 나타날 전망
- 반면 주요 조세 정책으로 인한 조세 순 증가는 차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침
  - \* GDP 대비 세입 비율이 FY1984-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법인세율 인하(19%→17%) 계획 취소로 조세 증가 효과 발생
  - 반면 국가보험 기여금 납부 소득 기준 및 하한 소득 기준 인상, 연료세 및 주세 동결 연장 등으로 인해 조세 증가 효과 일부 상쇄

4)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p.5., 이하 내용은 pp.5~6, pp.98~99를 참고하여 작성

5) HM Treasury, *Budget 2020*, 2020.3.,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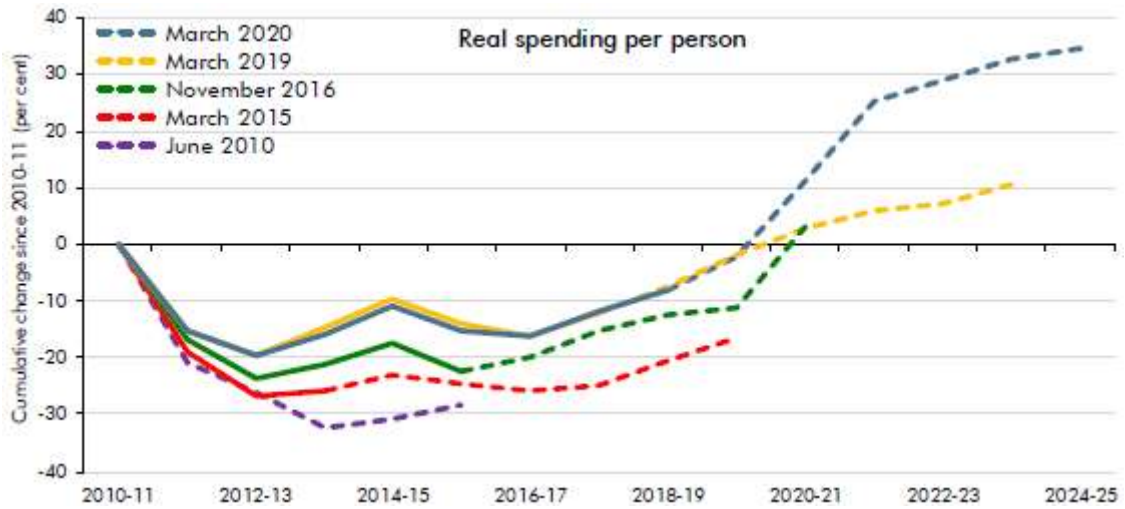
[그림 1] 1인당 부처별 경상지출(RDEL)의 누적 변화분(실질 기준)



주: FY2017-18과 FY2018-19는 비거주재산세 관련 시범 정책의 효과가 제외됨. 다른 모든 수치에는 자원 DEL과 스코틀랜드 정부의 경상 AME가 모두 포함되며, 최근 전망과 일치하도록 조정됨.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Chart 3.2

[그림 2] 1인당 부처별 자본지출(CDEL)의 누적 변화분(실질 기준)



주: FY2017-18과 FY2018-19는 비거주재산세 관련 시범 정책의 효과가 제외됨. 다른 모든 수치에는 자본 DEL과 스코틀랜드 정부의 자본 AME가 모두 포함되며, 최근 전망과 일치하도록 조정됨.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Chart 3.3.

- 예산안에서 발표된 계획을 통해 향후 2년간 성장률이 0.5%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sup>6)</sup>
  - 또한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정책 조치 전 기준선 전망에 비해 재정적자는 향

6) HM Treasury, Budget Speech 2020, 2020.3.11.

후 5년간 GDP 대비 평균 0.9% 상승하고, FY2024-25년까지 공공부문 순채무는 GDP 대비 4.6% 늘어날 전망이다)

- (정책 방향)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조치와 함께 미래의 번영을 위한 예산을 제시
  - (코로나 19 대응)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인, 기업 지원을 위해 약 120억 파운드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
    - ※ 자세한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의 '가. 2020 예산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정책'을 참고
  - (미래 번영을 위한 예산)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자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이후 첫 예산으로, 미래 번영을 위한 토대를 세우고 영국 국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함
    - (우수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NHS, 학교·교육, 안보 및 치안 등에 자금 지원
      - 의회 회기 말까지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상지출은 현재보다 약 1천억파운드 더 증가할 전망
      - ※ 자세한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의 '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참고
    - (지역 균형 발전(Level up) 및 인프라 투자) 도로, 통신, 주택 등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전역에 대해 수십억 파운드의 투자를 제공
      - 영국 전역의 생산성과 성장률 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통해 영국 전체의 수준을 높임
      - ※ 자세한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의 '나. 인프라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을 참고
    - (국민·가계 지원) 국민 생계비 지원과 취약 계층 지원
      - 국민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8,632→9,500파운드),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인상(8.21→8.72파운드)
      - 10년 연속 연료세 동결, 모든 주류세 동결, 전자 출판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 탐폰세 폐지, 면세 보육 제도 개선 등 생계비 부담 완화
      - 복지 수당 동결 종료, 고용 수당(working-age benefits) 인상, 노숙자 지원 (6억 4,300만파운드) 등 취약 계층 지원

7)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p.5.

- (기업 지원) 창업, 자영업자, 수출 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과 규제 합리화 추진
  -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기여금의 고용 공제(Employment Allowance) 상한 인상(3천→4천파운드)을 통해 기업의 고용 비용 절감
  - 스타트업 대출 프로그램을 FY2021-22까지 연장하여 1만명 추가 지원
  - 수출금융청(UKEF)의 대출 여력 강화를 위해 추가 자금 제공
- (혁신을 위한 투자) 연간 R&D 공공 투자를 FY2024-25까지 220억파운드로 늘릴 계획
  - 영국 전역의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 인프라, 장비 지원에 4억파운드의 추가 자금 제공, Weybridge의 수의학 연구 시설에 10년간 14억파운드 투자 등
  - R&D 지출 공제율 인상(12%→13%), 생명과학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 재원 제공, 핵융합·우주·청정에너지 등 기술에 9억파운드 투자
- (친환경 경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 보호, 녹색 경제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 제시
  -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레드 디젤<sup>8)</sup>에 대한 세금 감면 일부 폐지, 가스에 대한 기후변화세 인상 등 환경 오염 관련 조세 정책 발표
  -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지원(5년간 5억파운드), 저공해 차량 구입 촉진 지원(5억 3,300만파운드)등 청정 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 및 조세 감면
  - 신규 탄소 포집·저장 클러스터 구축(8억파운드 이상), 식목 및 이탄 지대 복원 지원(6억 4천만파운드), 생태 서식지 지원 등

□ (재정에 미치는 영향) 2020 예산안의 주요 정책 결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sup>9)</sup>은 FY2020-21에 179억파운드로 추계됨

- FY2020-21에 주요 지출 정책 결정은 192억 5천5백만파운드 지출 확대, 조세 정책 결정은 13억 5천5백만파운드 세입 증가 효과가 예상됨

8) 레드 디젤(red diesel)은 도로용 차량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를 지칭함

9) 공공부문 순차입(PSNB)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 주요 정책의 비용 및 수입

<표 3> 2020 예산안 정책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지출정책	-355	-19,255	-40,185	-45,640	-48,780	-49,440
세입정책	+960	+1,355	+3,755	+7,110	+7,625	+7,520
<b>정책 총계</b>	<b>+605</b>	<b>-17,900</b>	<b>-36,430</b>	<b>-38,530</b>	<b>-41,150</b>	<b>-41,920</b>

주: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Budget 2020*, 2020.3., Table 1.

### 3. 예산안 주요 내용

#### 가. 수입

- (수입 전망) FY2020-21의 경상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336억파운드 증가한 8,729억파운드이며 GDP 대비 경상수입 비율도 37.9%로 전년(37.7%)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sup>10)</sup>
  - GDP 대비 경상수입 비율은 FY2019-20부터 FY2024-25 사이에 약 0.9%p 상승하여 FY2024-25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8.5%를 기록할 전망이다
  - (세목별 수입) FY2020-21 소득세는 전년 대비 123억파운드 증가한 2,075억파운드, 국민보험기여금은 48억파운드 증가한 1,502억파운드로 추계됨
    - FY2020-21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39억파운드 증가한 1,406억 파운드, 법인세는 약 30억파운드 증가한 581억파운드, 지방세(council tax)는 전년 대비 17억파운드 증가한 379억파운드, 비거주재산세는 3억파운드 증가한 315억파운드로 전망
    - FY2020-21에 연료세, 주세, 은행세, 환경부담금, EU ETS 경매세는 전년 대비 규모가 감소할 전망
  - (경제유형별 수입) FY2020-21 경제유형별 경상수입(공공부문 기준) 비중은 생산 및 수입과세 34.1%(2,977억파운드), 소득 및 재산세 32%(2,789억파운드), 법정사회보장기여금 17.2%(1,502억파운드) 등의 순서로 나타남

10)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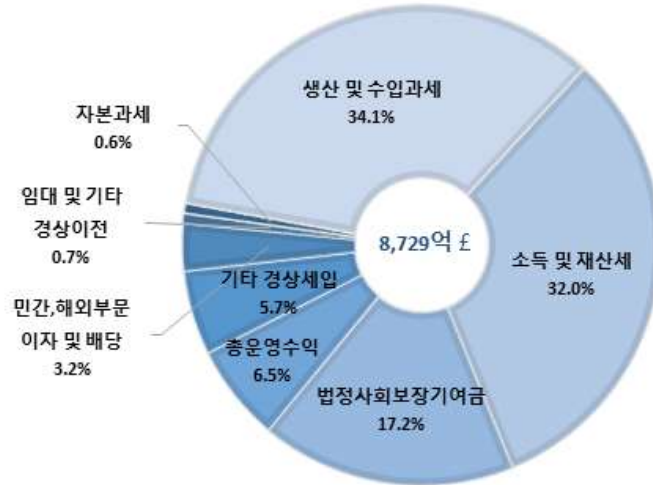
<표 4> 경상수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소득세	192.6	195.2	207.5	217.4	227.3	236.6	246.6
국민보험기여금((NICs)	137.3	145.4	150.2	157.0	164.0	170.3	177.1
부가가치세	133.1	136.6	140.6	145.9	151.0	155.8	160.7
법인세	56.3	55.1	58.1	60.0	62.6	64.9	67.2
석유세	-0.7	-0.4	-0.3	-0.3	-0.2	-0.2	-0.2
연료세	28.0	27.7	27.5	28.1	30.5	31.2	31.7
비거주재산세	30.6	31.2	31.5	33.4	34.3	34.9	36.2
지방세(Council tax)	34.8	36.2	37.9	39.1	40.3	41.6	42.9
VAT 환급(refunds)	18.3	19.2	20.2	21.0	21.8	22.5	23.7
자본이득세	9.2	10.0	11.4	12.7	14.3	15.7	17.0
상속세	5.4	5.1	5.5	5.9	6.3	6.7	7.1
부동산취득세	12.9	12.8	13.8	14.7	16.2	17.4	18.7
주식취득세	3.6	3.4	3.6	3.7	3.9	4.0	4.1
담배세	9.2	8.7	9.0	8.8	8.8	8.7	8.7
주세	12.1	12.1	11.9	12.4	12.8	13.3	13.9
항공여객세	3.6	3.8	4.0	4.2	4.4	4.6	4.8
보험료세	6.3	6.5	6.6	6.7	6.9	7.0	7.1
기후변화세	1.9	2.1	2.2	2.1	2.3	2.4	2.6
은행세(Bank levy)	2.5	2.4	1.9	1.1	1.1	1.1	1.0
은행특별세(Bank surcharge)	1.8	1.5	1.6	1.6	1.6	1.7	1.7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2.6	2.8	3.0	3.1	3.2	3.3	3.5
청량음료사업세(설탕세)	0.3	0.3	0.3	0.3	0.3	0.3	0.4
디지털서비스세	0.0	0.1	0.3	0.4	0.4	0.5	0.5
기타 국세(HMRC taxes)	7.4	7.4	7.4	7.6	7.7	7.7	7.8
자동차소비세	6.5	6.7	7.1	7.0	7.2	7.4	7.6
면허료 수입	3.2	3.3	3.6	3.8	3.8	3.9	3.9
환경부담금	7.5	10.2	9.6	9.9	9.8	10.4	10.8
EU ETS 경매세	0.3	1.5	1.2	1.2	1.3	1.3	1.3
기타 조세	8.8	8.8	9.0	9.3	9.7	9.8	9.9
<b>국민계정 조세수입</b>	<b>735.3</b>	<b>755.8</b>	<b>786.2</b>	<b>818.2</b>	<b>853.6</b>	<b>885.0</b>	<b>918.6</b>
EU 부담금 공제	-3.4	-3.4	-2.4	-	-	-	-
이자 및 배당	24.0	27.6	27.6	28.9	30.6	32.4	33.9
총운영수지	52.9	54.3	57.0	58.7	61.3	63.5	66.2
기타수입	4.0	5.0	4.5	4.9	3.7	3.8	3.6
<b>총 경상수입</b>	<b>812.9</b>	<b>839.3</b>	<b>872.9</b>	<b>910.8</b>	<b>949.2</b>	<b>984.7</b>	<b>1,022.3</b>
(2019년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3.4)	(+6.1)	(+6.2)	(+13.3)	(+18.6)	(+18.4)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Table 3.3 및 3.4.

[그림 3] FY2020-21 경제유형별 수입(공공부문 기준) 비중



출처: OBR, March 2020 Economic and Fiscal outlook: Fiscal supplementary tables: receipts and other, 2020.3., Table 3.2.

□ (주요 조세정책의 영향) 2020 예산안의 주요 조세정책으로 FY2020-21에 13억 5천 5백만파운드 세입 증가 효과가 예상됨

○ 공공서비스 투자

- (서비스 제고) 외국인 의료보험료(IHS) 인상(£400→£624, 18세 미만은 신규 할인 적용)으로 FY2020-21에 1억 5천만파운드 세수 증가, NHS 직원의 추가 근무 보장을 위한 연금 세제 개편으로 FY2020-21에 1억 8천만파운드 세수 감소
- (국민·가계 지원) 국가보험 기여금 납부 소득 기준 및 하한 소득 기준 인상으로 FY2020-21에 21억 1천만파운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연료세와 주세 세율 동결, 전자출판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 여성 위생용품 VAT 폐지 등도 세수 감소 요인임

○ (기업 지원) 고용자 부담 국가보험기여금의 고용 공제 상한 인상(£3,000→£4,000), 비거주재산세의 소매업 감면 확대(감면율 50%로 인상, 영화관, 공연장으로 적용 확대), 펄에 대한 비거주재산세 감면 도입 등으로 세수 감소

○ (친환경 경제) FY2020-21에 무공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 소비세 고가 차량 가산세 면제로 세수가 1천만파운드 감소할 전망이며 플라스틱 포장세(2022년 도입

예정), 레드 디젤 사용 제한(2022년)을 위한 조치 등은 향후 세수 증가 요인임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 2020년 법인세율을 19%로 유지함에 따라 46억 3,500만파운드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자본이득세의 기업가 감면 생애 한도 인하(£1천만→£1백만), 영국 비거주자에 대한 토지 인지세 2% 가산세 도입 등도 세수 증가 요인임
- (조세회피·탈루 방지) 납세 순응 개선을 위한 투자로 추가 세수 확보

<표 5> 2020 가을예산안 조세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b>공공서비스 투자</b>						
<b>서비스 제공</b>						
외국인 의료보험료 인상	0	+150	+355	+355	+360	+355
연금 세제: 임계소득 기준과 조정 소득 기준 인상, 최소 연간 공제 인하	0	-180	-315	-450	-560	-670
<b>국민·가계 지원</b>						
국가보험: 기여금 납부 소득 기준 및 하한 소득 기준 인상	*	-2,110	-2,185	-2,360	-2,370	-2,370
연료세 동결(2020-21)	0	-525	-530	-540	-555	-560
주세 동결(2020-21)	-40	-285	-295	-305	-310	-320
VAT: 전자출판에 영세율 적용	0	-60	-175	-185	-190	-200
국가보험: 퇴역 군인을 고용한 경우 국가보험기여금 납부 1년 감면	0	0	-15	-20	-25	-25
VAT: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VAT 폐지	0	-5	-15	-15	-15	-15
자동차소비세 신규 캠퍼카의 구분 기준 변경	*	-15	-20	-25	-30	-35
<b>기업 지원</b>						
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 공제율 인상	-15	-90	-165	-210	-260	-295
고용자 부담 국가보험기여금의 고용 공제 상한 인상	0	-445	-455	-465	-470	-475
비거주재산세: 소매업 감면 확대	+10	-270	-15	0	0	0
비거주재산세: 과세표준가액 £10만 미만의 펍에 대해 £1천 감면(2020-21년)	*	-20	*	0	0	0
법인세: 2002년 이전의 무형고정자산 감면	-5	-25	-60	-95	-140	-185
<b>친환경 경제</b>						
플라스틱 포장세: 재활용 플라스틱이 30% 미만 기준, 1톤당 £200 부과	0	0	0	+240	+235	+220
Red Diesel: 감면 폐지(농업, 철도, 가정용 난방은 제외)	0	0	+15	+1,575	+1,640	+1,645
기후변화세: 기후변화협약제도 2년 연장, 신규 참여 재허용	0	*	-5	-5	-190	-190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가스에 대한 기후변화세 인상	0	0	0	+130	+260	+270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본 공제: 무공해(ZEV) 차량 1년 공제 연장, 자격 기준 강화	0	*	-5	+10	+70	+110
탄소가격지원 : 2021-22년 동결	0	0	-20	-15	-15	-15
자동차 소비세: 무공해 차량의 고가 차량 가산세 면제	0	-10	-15	-20	-30	-45
<b>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b>						
법인세: 세율 19% 유지	+930	+4,635	+6,120	+6,680	+7,075	+7,500
자본이득세: 기업가 감면 생애 한도 인하	+5	+215	+1,120	+1,470	+1,670	+1,820
토지 인지세 영국 비거주자 2% 가산	0	+250	-355	+35	+105	+105
담배세율 조정(RPI+2%p(기한 연장), 단 hand-rolling은 RPI+6%p로 인상)	+5	+30	+35	+30	+15	+5
소득세: Top Slicing Relief 개정	0	*	-15	-15	-15	-20
디지털 서비스세: 기술적 변화	+65	-5	*	*	*	+70
기업 자본 수익 결손금 이월 공제: 청산 중인 회사에 대해 한도 완화	*	*	-5	-5	-5	-5
골재세 동결(2020-21년)	0	-10	-10	-10	-10	-10
대형차 소비세 동결(2020-21년)	0	-10	-10	-10	-10	-10
회사 차량 개인 사용에 대한 과세를 CPI와 연동하여 인상	0	+5	+5	+5	+5	+5
성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 한도 유지(2020-21년)	0	*	*	*	*	+5
<b>조세회피·탈루 방지</b>						
대기업이 불확실한 과세처리에 대해 국세관세청에 통지	*	+10	+20	+40	+45	+45
건설 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	0	0	0	+20	+20	+15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	0	0	+5	+35	+50	+65
납세 순응 개선을 위한 투자(HMRC)	+55	+280	+855	+1,065	+1,075	+595
<b>기존에 발표된 정책</b>						
Independent Loan Charge Review: 권고 이행	-30	-305	-245	-70	-70	-25
Windrush 보상금에 대한 조세 감면	*	-5	-5	*	*	*
파산 시 조세 보호: 시행 연기, 지역 확대	-5	-30	-85	-35	+5	+5
회사 차량 과세: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한 일시적 감면	0	-50	-50	*	0	0
주식인지세: 비상장 증권의 연결 회사 이전 시 조세 회피 방지	0	+5	+5	+5	+5	+5
VAT: 건축 서비스의 국내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일 변경	-85	-60	+20	+15	0	0
<b>총 조세정책 효과</b>	<b>+960</b>	<b>+1,355</b>	<b>+3,755</b>	<b>+7,110</b>	<b>+7,625</b>	<b>+7,520</b>

주: 1) 추계는 OBR의 최근 경제·재정 결정 요인을 반영

2) 많은 정책들이 조세와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조세 정책과 지출 정책을 구분한 것임

3)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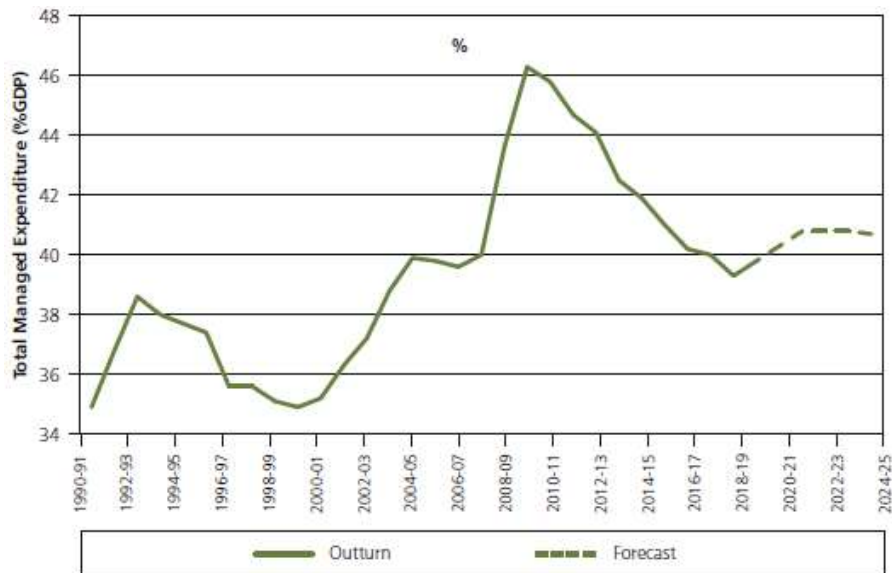
4) 조세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Budget 2020, 2020.3., Table 2.1의 일부 발췌

## 나. 지출

- (지출 전망) FY2020-21의 총관리지출(TME) 규모는 9,277억파운드로 전년대비 409억파운드 증가할 전망이며 GDP 대비 비율도 전년 대비 상승한 40.3%를 기록할 전망
  - FY2020-21 공공부문 경상지출은 전년대비 281억파운드 증가한 8,158파운드, 공공부문 총투자는 전년대비 128억파운드 증가한 1,119억파운드로 전망
  - FY2019-20 ~ FY2024-25 총관리지출의 연평균 실질증가율은 1.9%로 예상됨

[그림 4]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 추이



출처: HM Treasury, *Budget 2020*, 2020.3., Chart 1.11.

- 경상지출의 부처별지출한도(DEL)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추후 지출검토 기간 (FY2021-22~FY2023-24) 동안 2.8%, 의회 회기 동안 3.3%를 기록할 전망
- 향후 5년간 약 6,400억파운드 규모의 공공부문 총투자가 예상되며, FY2024-25에 공공부문 순투자는 지난 40년 간 평균의 약 3배(실질 기준) 수준을 기록할 전망

<표 6> 총관리지출(TME)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b>공공부문 경상지출</b>							
자원 DEL	295.6	316.3	339.8	361.3	375.9	391.8	408.6
자원 AME	462.7	471.4	476.0	492.8	505.6	518.1	532.2
사회복지지출	222.8	224.6	231.2	237.8	246.8	256.9	266.8
지방재정 경상지출	52.7	53.9	55.0	55.1	56.9	58.6	60.1
중앙정부총채무이자,APF 채무이자삭감	37.5	38.2	34.5	37.8	37.9	37.3	36.8
스코틀랜드정부 경상지출	27.9	32.0	33.5	35.6	37.4	38.9	40.7
EU분담금	12.2	11.0	9.0	11.1	8.4	4.7	2.2
EU분담금대체추정지출	-	-	-	-	-	-	-
순공공서비스연금지출	12.9	6.9	4.2	2.9	2.0	1.2	0.3
기업및기타세액공제	6.2	6.8	7.4	7.9	8.4	8.8	9.2
BBC 지출	3.0	3.8	4.0	4.0	4.1	4.1	4.2
국가복권 경상지출	1.2	1.3	1.3	1.1	1.0	1.0	0.9
일반정부귀속연금	0.9	1.3	1.3	1.3	1.3	1.3	1.3
공기업채무이자	0.4	0.4	0.4	0.4	0.5	0.5	0.5
공공부문 연금 제도 지원	18.7	19.5	20.5	21.4	22.4	23.5	24.6
감가상각	41.1	42.2	44.1	45.7	47.4	49.3	51.3
경상부가가치세환급	16.1	16.9	17.7	18.4	19.1	19.7	20.9
환경부담금	7.8	10.7	10.6	11.0	10.9	11.5	12.0
기타 경상지출	2.2	1.6	1.2	1.4	1.5	1.5	1.6
기타 회계조정	-1.0	0.3	0.1	-0.2	-0.5	-0.8	-1.2
<b>총 공공부문 경상지출</b>	<b>758.3</b>	<b>787.7</b>	<b>815.8</b>	<b>854.1</b>	<b>881.5</b>	<b>909.9</b>	<b>940.8</b>
<b>공공부문 투자</b>							
자본 DEL	50.8	59.9	71.2	82.2	86.6	91.5	94.8
자본 AME	42.2	39.1	40.7	41.1	42.6	43.5	44.6
지방재정 자본지출	13.1	13.1	10.9	10.3	10.8	10.3	10.4
공기업 자본지출	9.9	11.0	11.4	11.4	11.5	11.7	11.9
학자금 대출	10.1	9.8	10.6	11.2	11.9	12.4	12.8
공공부문 연금 제도 지원	1.6	0.8	0.9	0.9	0.9	0.9	0.9
스코틀랜드정부 자본지출	3.4	4.0	4.6	5.4	5.6	5.8	6.0
세무소송	0.0	0.0	1.8	1.2	1.1	1.1	1.1
기타 자본지출	6.8	0.8	0.8	0.8	0.8	0.7	0.6
기타 회계 조정	-2.7	-0.4	-0.3	0.0	0.0	0.6	0.7
<b>총 공공부문 투자</b>	<b>93.0</b>	<b>99.1</b>	<b>111.9</b>	<b>123.3</b>	<b>129.2</b>	<b>135.0</b>	<b>139.4</b>
감가상각 공제	-48.8	-49.9	-52.2	-54.0	-56.0	-58.1	-60.3
공공부문 순투자	44.3	49.1	59.7	69.3	73.2	77.0	79.1
<b>총관리지출<sup>1)</sup></b>	<b>851.3</b>	<b>886.8</b>	<b>927.7</b>	<b>977.4</b>	<b>1,010.7</b>	<b>1,044.9</b>	<b>1,080.2</b>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sup>2)</sup> )	(0.8)	(6.0)	(20.8)	(42.4)	(44.7)	(4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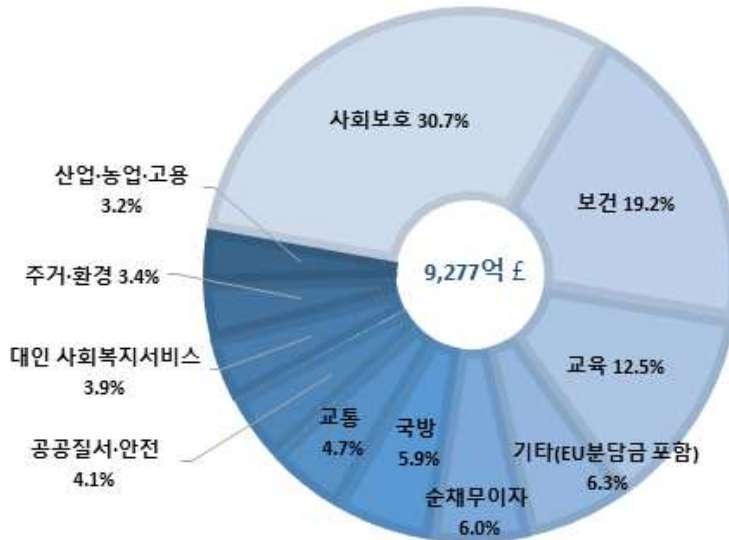
주: 1)총관리지출(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자원 DEL+자원 AME)과 공공부문 총투자(자본 DEL+자본 AME)의 합으로 구성. 부처별지출한도(DEL)은 지출 검토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가능한 지출이며, 연간관리지출(AME)은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 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임

2) 통계 및 예산 분류 변경을 반영한 '조정된 3월 전망치' 대비 변화분을 의미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Table 3.13 및 3.14.

- (기능별 지출) FY2020-21 공공부문 지출 규모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호(2,850억파운드), 보건(1,780억파운드), 교육(1,160억파운드) 분야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그림 5] FY2020-21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 비중(총관리지출(TME) 기준)



출처: HM Treasury, *Budget 2020*, 2020.3., Chart1.을 참고하여 작성

- (주요 지출정책의 영향) 2020 예산안의 주요 지출정책으로 FY2020-21에 192억 5천5백만파운드의 지출 증가 효과가 예상됨
  - (공공서비스 지출) FY2020-21에 EU 분담금 지출 절감으로 지출 감소 효과(43억 4천만파운드)가 발생하는 반면 보건, 학교, 범죄 사법 시스템 등 공공 서비스 계획 수행, 국가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농업 지원 직불금 등 정책에서 지출이 확대
    - 특히 2019 Spending Round와 2020 지출 검토의 자원 지출 한도 설정을 반영해 지출 규모 확대
  - (국민·가계 지원) 노숙인에 대한 거주 지원, 약물 오남용 치료, 관련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FY2020-21에 6천만파운드 지출 확대
    - 장애인 자립지원급여 재심사 빈도 축소는 FY2022-23부터, 신생아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최대 12주) 도입과 주택 수당의 Shared Accommodation Rate<sup>11)</sup>

11) 35세 미만 1인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 수당 기준

면제 확대는 FY2023-24부터 지출 발생

- (기업 지원) 창업자에게 사업 지원, 시장 정보 제공, 1대1 코칭 등을 제공하는 국립도서관의 비즈니스 및 IP 센터 네트워크 확대에 추가 지출
  - 또한 2020년 4월부터 연구개발 지출 공제 비율 인상(12%→13%) 예정
- (지역균형발전 및 인프라 투자) 교통, 보건, 사법, 교육, R&D 등 투자 계획 이행, 건축안전기금 추가 재원, 문화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FY2020-21 지출 증가
  - 또한 2019 Spending Round와 2020 지출 검토의 자본지출 한도 설정 반영
- (친환경 경제) 저공해 차량(Plug-in Car, Plug-in Van 등) 구매 보조금 연장, 대기 질 개선 조치를 위한 지역 당국에 자금 제공 등에 지출
- (조세회피·탈루 방지) 지역 당국에 추가 투자하여 주택 수당 부정수급 방지 역량 극대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상한 도입 연기(2021년 4월)

<표 7> 2020 예산안 지출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b>공공서비스 지출</b>						
<i>Spending Review(지출 검토)</i>						
Spending Round 2019/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2020에 대한 자원지출 한도	-2,530	-12,600	-27,225	-32,095	-36,085	-42,320
보건, 학교, 범죄사법시스템 등 공공 서비스 계획 수행(자원지출)	0	-1,430	-2,685	-2,795	-2,825	-
EU 분담금 절감	0	+4,340	+4,990	+7,130	+11,250	+14,605
농업 지원 : 국내 직불금	0	-2,710	-	-	-	-
<b>서비스 제공</b>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병원, 진단, 운영 자본	0	-1,065	-	-	-	-
교도소: 유지 보수	0	-175	-	-	-	-
치안 : 테러 대응	0	-80	-	-	-	-
Safer Streets Funds: CCTV 및 가로등	0	-15	-	-	-	-
공공사업용자위원회(PWLB)	+105	+60	+175	+205	+270	+325
<b>국민·가계 지원</b>						
자립지원급여 재심사 빈도 축소	0	0	0	-55	-75	-90
신생아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최대 12주)	0	0	0	0	-15	-15
주택수당: Shared Accommodation Rate 면제 확대	0	0	0	0	-10	-15
노숙인 지원	0	-60	-	-	-	-
<b>기업 지원</b>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연구개발지출공제 : 공제율 인상	0	*	-170	-275	-300	-310
기업 생산성 및 지역 기업 지원	0	-20	-	-	-	-
<b>지역균형발전(Level up) 및 인프라 투자</b>						
Spending Round 2019/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2020에 대한 자본지출 한도	0	-2,450	-13,690	-14,465	-13,610	-22,500
교통, 보건, 사법, 교육, R&D 등 투자 계획 이행(자본지출)	0	-3,290	-4,315	-6,160	-8,150	-
주택: 건축안전기금(Building Safety Fund)	0	-1,215	-	-	-	-
주택 재개발 주택 기금(Brownfield Housing Fund)	0	-95	-	-	-	-
문화: 문화투자자금, 박물관 유지·보수 등	0	-95	-	-	-	-
<b>친환경 경제</b>						
저공해 차량 지원 보조금	0	-140	-	-	-	-
대기질 개선	0	-175	-	-	-	-
재생에너지 난방 인센티브 연장	0	0	-10	-30	-35	-35
<b>조세회피·탈루 방지</b>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PAYE 상한 도입 연기	0	0	-60	-130	-65	-35
주택수당: 부정수급 방지에 투자	0	+115	+140	+125	+105	+60
<b>금융 거래</b>						
금융 거래 변화의 공공부문순차입 영향	+2,160	+2,530	+2,900	+3,155	+990	+985
<b>기준에 발표된 정책</b>						
비거주재산세 보유세 강화(시범)	0	-150	+45	0	0	0
2020-21년 역교부금 폐지	0	-65	0	0	0	0
청년 투자 기금(youth investment fund)	0	-80	-	-	-	-
EEA 이민자의 비기여형 복지 수당 이용 제한	0	*	+5	+25	+50	+80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및 자녀세액공제 유출 중단	0	*	*	*	+5	+5
통합급여: 초과 소득 기준 하향 조정 1년 연기	0	-75	0	0	0	0
통합급여: 연금 급여로 이동하는 수급자 추가 지원	0	-5	-10	-10	-15	-25
기존 중증장애부가급여 수급자의 통합급여 전환 시 보호	-10	-5	-5	*	*	0
<b>총 지출정책 효과</b>	<b>-355</b>	<b>-19,255</b>	<b>-40,185</b>	<b>-45,640</b>	<b>-48,780</b>	<b>-49,440</b>

주: 1) 추계는 OBR의 최근 경제·재정 결정 요인을 반영

2) 많은 정책들이 조세와 지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의 상대적 크기를 기준으로 조세정책과 지출 정책을 구분한 것임

3)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4)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Budget 2020, 2020.3., Table 2.1의 일부 발췌

#### 4. 주요 재정정책

##### 가. 2020 예산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정책<sup>12)</sup>

12) HM Treasury, Budget 2020, 2020.3., pp.37~41.

□ (개요) 재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기업,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에서 120억파운드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함

□ 공공 서비스 지원

○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 자금)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와 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타 공공서비스에 필요 재원을 제공하는 긴급 자금(COVID-19 response fund) 편성

- (지원 내용) ①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를 위한 NHS 지원, ②사회 보호 서비스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 당국의 조치 지원, ③기타 공공서비스 준비·보호를 위한 재원 보장

- (규모) 예산안에서 발표된 초기 자금 규모는 50억파운드임

\* 재무부는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자금 규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

· 이후 추가 지출들이 계획됨에 따라 긴급 대응 자금 규모가 145억파운드로 증가<sup>13)</sup>(4월 13일 기준)

○ (연구 개발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 보건연구원(NIHR)에 3천만파운드, 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보건사회복지부에 1천만파운드 자금 배정

□ 개인 지원

○ (법정 질병수당 확대) 코로나 19 확진자는 물론 자가 격리자도 법정 질병수당(Statutory Sick Pay)을 청구 가능하도록 변경

- 또한 기존 법정 질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 4일차부터 지급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우는 1일차부터 지급

- 코로나 19 관련 결근 시 의사의 근로능력 진단서(fit note) 대신 NHS 전화 서

---

HM Treasury, Budget 2020 - Support for those affected by COVID-19, 2020.3.11.

13) HM Treasury, Chancellor provides over £14 billion for our NHS and vital public services, 2020.4.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provides-over-14-billion-for-our-nhs-and-vital-public-services>

- 비스를 통한 증빙 자료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코로나 19 감염자·자가 격리자 중 법정 질병수당 수급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나 주당 118파운드 이하 소득자들도 복지 시스템을 통해 지원
  - (통합 급여(Universal Credit)) 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영업 청구자들의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최소 소득 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센터 참석 요건도 완화
  - (기여형 고용지원수당(Contributory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감염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8일차가 아닌 1일차부터 청구 가능
- (Hardship Fund)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잉글랜드 내 지역 당국에 5억파운드 규모의 Hardship Fund를 통해 자금 지원
  - 대부분 카운슬세(council tax) 추가 감면에 활용될 예정

□ 기업 지원

- (법정 질병수당 보전) 중소기업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결근(확진, 자가 격리)의 경우 법정 질병수당을 보전
  - (지원 대상) 2020년 2월 28일 기준, 피고용인 250명 미만의 고용주
  - (지원 내용) 고용주가 지출한 직원 1인당 최대 2주의 질병수당을 정부가 보전
  - (지원 규모) 2백만개의 기업에게 20억파운드 이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sup>14)</sup>
- (비거주재산세 감면 확대)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 소매업 감면의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 하고 적용 부문을 확대
  - \* 정부는 지방 당국에 조세 감면 조치 전액을 보전할 예정
  -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FY2020-21에 소매업에 대한 비거주재산세 감면 비율을 당초 계획했던 50%에서 100%로 1년간 확대
    - 또한 레저와 접객업 부문까지 감면 적용을 확대
  - 과세표준가액 10만파운드 미만의 펍에 대한 비거주재산세 감면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천파운드에서 5천파운드로 1년간 확대

14) HM Treasury, Budget Speech 2020, 2020.3.11.

- (중소기업 보조금) 비거주재산세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에게 추가로 보조금을 제공
  - (지원 대상) 비거주재산세의 소기업 감면(Small Business Rate Relief)<sup>15)</sup>이나 농어촌 감면(Rural Rate Relief)<sup>16)</sup>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sup>17)</sup>
  - (지원 내용) 사업 비용 지원을 위해 3천파운드의 1회성 보조금 제공
    - 이후 발표된 추가 대책(3월 17일)에서 보조금 금액이 3천파운드에서 1만파운드로 상향 조정됨<sup>18)</sup>
  - (지원 규모) 약 70만개 사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방정부에 22억파운드 자금을 제공 예정
- (중소기업 사업중단대출 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업중단대출 제도(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를 통해 중소기업에 최대 120만파운드의 대출 지원
  - 동 대출은 영국 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이 수행하며 정부가 대출의 80%에 대해 보증 제공
    - 추가 대책에서 대출 한도를 120만파운드에서 500만파운드로 확대(3월 17일)하고 정부가 이자 비용을 12개월간 부담하기로 함
    - 추가 대책 및 지침(4월 3일, 16일)을 통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중단대출 제도(Coronavirus Large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를 도입<sup>19)</sup>
  - \* 연매출 4,5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대출을 보증(80%)함(매출 4,500

15) 과세표준가액 15,000파운드 미만의 부동산 소유 사업체 대상

16) 인구 3천명 미만 전원(田園) 지역에 있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대상

17) 영국 정부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0.3.25. <https://www.gov.uk/apply-for-business-rate-relief>

18) HM Treasury, Chancellor announces additional support to protect businesses, 2020.3.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additional-support-to-protect-businesses>

19) HM Treasury, Chancellor strengthens support on offer for business as first government-backed loans reach firms in need, 2020.4.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strengthens-support-on-offer-for-business-as-first-government-backed-loans-reach-firms-in-need>

HM Treasury, Chancellor expands loan scheme for large businesses, 2020.4.16.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expands-loan-scheme-for-large-businesses>

만~2억5천만파운드 기업은 최대 2,500만파운드, 매출 2억5천만파운드 초과 기업 최대 5천만파운드의 대출 신청 가능)

- (납세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국세관세청의 Time to Pay Service를 통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미지급 세금이 있는 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타 국제적 대응) 전염병 확산 방지 노력 지원을 위해 IMF의 재해 억제 및 부채 경감 기금(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CCRT)에 ODA 예산에서 최대 1억 5천만파운드 지원 약속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예산안 발표 이후에도 고용 유지 보조금, 자영업자 현금 보조금, 복지급여 강화, 기업 대출 확대 등 추가 지원 대책들을 발표하였음.<sup>20)</sup>

#### 나. 인프라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Level up)

- (개요) 영국 정부는 국가 성장률을 제고하고 지역간 경제 및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며 마을·도시의 구조를 재건(복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함
  - 앞으로 5년간 영국의 도로, 철도, 디지털 네트워크 등에 약 6,400억파운드를 투자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할 예정
  - 향후 국가 인프라 전략(National Infrastructure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이며 지출 검토(CSR)에서 전체 부처별 지출 계획을 수립할 것임
- 주요 정책(Levelling up and getting Britain building)
  - 인프라 투자
    - (교통) 2차 도로투자전략(RIS2<sup>21)</sup>)을 통해 2020년~2025년에 270억파운드 이상 지출, 지역간 철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부지역 철도 허브 개발에 2천만파운

20) 추가 조치에 대한 내용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자료(<https://www.gov.uk/coronavirus>)를 참고 바람

21) Second Road Investment Strategy

## 드 투자

- 지방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도시 혁신 기금(Transforming Cities Fund)에 10억파운드 배정
- 8개 연합 지역 당국에 FY2022-23부터 5년간 42억파운드 자금 배정(저탄소 메트로 네트워크, 트램 철도 시범 사업 등)
-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신규 Potholes Fund(연간 5억파운드 제공), 전국의 15개 지방도로 개선 등 추진
- (통신) 취약 지역에 기가비트 통신망 제공을 위한 50억파운드 규모의 계획 추진, 광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7개 지역 지원(Local Full-Fibre Networks Challenge Fund), 농촌 지역 이동통신사 공유 네트워크 구축에 5억1천만파운드 자금을 배정하여 2025년까지 4G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영국의 95%로 확대
- (홍수 방지) 잉글랜드의 홍수 및 해안 보호 프로그램에 6년간 약 52억파운드 까지 투자를 두 배로 늘려 약 33만 6천개의 건물을 보호
- 또한 이번 겨울 홍수 피해를 입은 자산 복구를 위해 환경청에 1억 2천만 파운드 제공 예정
- 25개 이상 지역의 홍수 및 해안 침식에 대한 복원력 개선 프로그램에 향후 6년간 2억파운드 제공
- 수자원 보전을 위해 상수도 및 수로 네트워크에 3천9백만파운드 투자
- (주택) 정부는 잉글랜드에 의회 회기 말 까지 1백만개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투자를 늘릴 예정
- 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다년간 122억파운드, 전국 사업 유희지의 주택 개발을 위한 지방 지원에 4억파운드 등
- (역량 개발) 직업교육학교 개선에 5년간 15억파운드의 자본 투자 제공, 성인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5억파운드의 신규 국가 역량 기금(National Skills Fund)<sup>22)</sup> 계획,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강화를 위해 8개의 신규 기술 교육 기관에 1억2천만파운드, 11개 수학 교육 기관에 7백만파운드 투자

22) 근로자에게는 평생 동안 훈련·재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고용주, 정부의 투자를 늘려 국가 생산성을 저해하는 역량 격차를 축소하기 위함

○ 영국 전 지역의 성장 제고

- 도심 상가(High Street)와 지역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해 36억파운드 규모의 타운 기금(Towns Fund) 조성
- 2021년 5월부터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연합 지역 당국을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웨스트 요크셔와 합의하였으며 이 지역에 향후 30년 동안 11억파운드의 투자를 제공하고 교통, 계획 등에 대한 주요 결정 권한을 이양함
- 향후 10년간 22,000명의 공무원들을 런던 중심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 예정
  - 잉글랜드 북부에 새로운 경제 캠퍼스(경제적 의사 결정 허브로 재무부와 기업, 지방정부, 무역 관련 부처가 포함)를 구축하는 한편 스코틀랜드 뿐만 아니라 웨일즈, 북부 아일랜드에도 재무부의 사무소를 오픈할 예정

○ 분권정부 지원

- 공공서비스, 인프라, 기타 우선순위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해 FY2020-21까지 스코틀랜드(6억 4천만파운드), 웨일즈(3억 6천만파운드), 북아일랜드(2억 1천만 파운드)에 포괄 보조금(block grant) 추가 지원
- 신규 4개 지역의 지방 도시 및 성장 계약(City and Growth Deal)<sup>23)</sup>에 2억 4,200만파운드 자금을 지원
- 이외에도 위스키 산업 지원, 스코틀랜드 식음료 부문 홍보, 웨일즈어 방송 지원 등 지역별 지원 정책도 발표함

## 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에 대한 투자) NHS는 정부의 최우선 지출 우선순위에 이며 이번 예산에서 NHS 강화를 위해 약 60억파운드 이상의 추가 자금을 제공

\* 2019년 1월 확정된 NHS 자금 배정에서 연간 재원 수준을 FY2023-24까지 340억 파운드 확대(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재원 증가)하기로 했고 2019년 Spending Round에서 FY2020-21에 1,390억파운드의 보건 예산을 확정

23) 영국 전역의 지방 분권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지방 도시 간 협약(deal) 체결

- (인력 확보) 인력 채용·훈련·유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지원 패키지 발표
  - NHS 간호사 5만명, 6천명 이상의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6천명 이상의 물리치료사 및 약사 등의 채용·훈련·유지 보장을 통해 진료 예약을 연간 5천만건 이상 확대
  - 소득 20만파운드 미만인 NHS 직원들이 연금의 연간 공제액 감소 없이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연금 과세 제도를 개선
- (시설 투자) NHS 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의 일환으로 FY2020-21에 40여개 신규 병원 프로젝트에 1억파운드 이상 투자
  - FY2020-21 보건복지부의 자본 예산을 6억 8,300만파운드 늘려 시설 개선 및 건물 유지 보수 등 주요 자본 투자 지속
- (성인 돌봄 서비스) Spending Round 2019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도 돌봄 서비스에 10억파운드 추가 자금 투자 예정
- (재원 확보) 외국인 의료보험료(IHS<sup>24</sup>) 인상을 통해 NHS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NHS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회피·탈루 방지 대책을 발표<sup>25</sup>)

□ 교육

- Spending Round 2019에서 정부는 잉글랜드 내 학교 지원 자금을 FY2022-23까지 FY2019-20 예산 대비 약 71억파운드 늘리기로 계획한 바 있음
  - 2022년 9월까지 교사 급여를 3만파운드로 인상
- 초등학교 체육 교육 및 스포츠 시설 활용 제고를 위해 FY2023-24까지 연간 2,900만파운드 지원
- 중등학교 예술 활동 지원(Arts Premium)을 위해 연간 9천만파운드 제공

24)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25) 재무부 장관의 연설에 따르면 조세 회피 대책을 통한 추가 세수 확보 규모는 약 44억파운드로 예상됨(HM Treasury, Budget Speech 2020, 2020.3.11.)

- 미술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에서 양질의 미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가 창의적인 수업을 제공하도록 지원

□ (치안) FY2020-21의 대테러 지출에 1억 1,400만파운드, 영국 정보 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의 기술 역량 구축을 위해 6,700만파운드 추가 제공

- 이 외에도 범죄 희생자 지원 개선을 위해 1,500만파운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신규 제도에 1천만파운드, 청소년 폭력 대응 센터 설립 지원을 위해 5백만파운드, 소방·구조 서비스에 2천만파운드 제공

## 라. 재정건전성 관리

### 1) 재정준칙

□ (재정준칙 변경) 이번 예산안은 기존에 법제화되어 있는 재정준칙<sup>26)</sup>이 아닌 보수당 총선 공약과 여왕 연설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을 바탕으로 수립함

- (새로운 재정준칙 기준) 보수당 총선 공약에서는 기존보다 비교적 완화된 재정준칙을 제시함
  - (경상예산 기준) 경상예산(current budget)은 5년 전망기간 중 세 번째 연도까지 적어도 균형을 달성
  - (공공부문 순투자 기준) 공공부문 순투자의 5년 전망기간 평균이 GDP 대비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
  - (세입 대비 채무 이자 비율 기준)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이 6%를 계속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정부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을 감축하도록 조치를 마련함
- (기대 효과) 경상지출은 계속 통제하면서 성장 친화적인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허용함
  - 또한 차입과 채무 수준을 통제하는 가운데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코로나

26)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2017.1. 의회 통과))에서 설정한 재정준칙으로, 신규 재정준칙을 반영해 개정되는 예산책임헌장이 의회를 통과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음

19와 같은 경제·재정의 단기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

- (향후 계획) 가을예산안 발표 이전에 재무부가 새로운 재정준칙에 대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며 검토가 완료되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책임헌장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
- (재정준칙 달성 평가) 예산책임청은 예산안이 재정준칙을 충족하는지 평가<sup>27)</sup>하고 있으며 3월 전망에서 기존 준칙과 새로운 재정준칙 모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함
  - (기존 재정준칙 달성 여부) 예산안이 공공부문 순차입 균형 기준(Fiscal Policy Objective)과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 2% 기준(Fiscal Mandate)\*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 FY2020-21의 GDP 대비 공공부문 경기조정 순차입이 2.4%로 전망되어 목표(2% 미만) 달성이 어려움
    - 그러나 공공부문 순채무 기준과 복지지출 한도 기준은 달성할 것으로 평가
  - (새로운 재정준칙 달성 여부) 예산안이 세 가지 신규 기준(경상 예산, 공공부문 순투자, 채무이자 비율)과 복지지출 한도(welfare cap)\*를 모두 충족할 것으로 평가함
    - \*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됨에 따라 복지지출 한도 수준을 재설정함

<표 8> 신규 복지지출 한도와 마진

(단위 : 십억파운드, %)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복지지출 한도(welfare cap)						137.2
중간 경로(pathway)	119.3	125.7	127.5	130.5	133.8	
마진(margin)	0.6	1.3	1.9	2.6	3.3	4.1
(%)	(0.5)	(1.0)	(1.5)	(2.0)	(2.5)	(3.0)
복지지출 한도+마진	119.9	127.0	129.5	133.1	137.1	141.3

주: 목표 기한 복지지출 한도의 3%를 불가피한 복지지출 변동에 대응한 마진(margin)으로 설정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Table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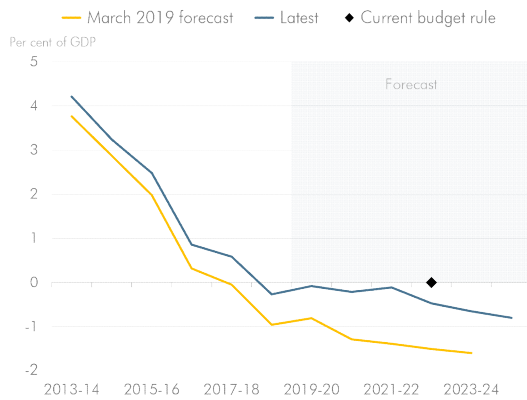
27) 예산책임청은 현 정책 하에 정부가 재정준칙을 달성할 가능성이 50%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표 9> 재정준칙 기준 및 달성 여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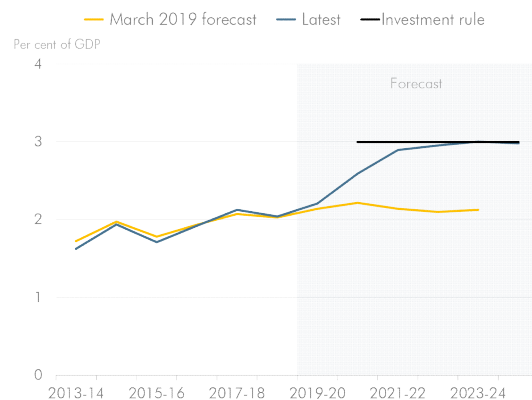
구분	기준	달성 여부
<b>(기존 재정준칙) 법제화된 재정준칙</b>		
Fiscal Policy Objective - 공공부문 순차입	다음 정권(2020~2025)에서 최대한 빨리 공공재정 균형 달성	X
Fiscal Mandate -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FY2020-21까지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 2% 미만 달성	X
Supplementary Target - 공공부문 순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FY2020-21에 하락세 달성	O
Welfare Cap - 복지지출 한도	FY2022-23에 복지지출이 정해진 기준 금액을 하회	O
<b>(신규 재정준칙) 2020 예산의 재정준칙</b>		
경상예산 준칙	2022-23년까지 경상예산 균형 달성	O
투자 준칙	공공부문 순투자의 5년 전망기간 평균이 GDP 대비 3% 이하	O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이 6% 이하	O
복지지출 한도	FY2024-25에 복지지출이 정해진 기준 금액을 하회	O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0, 2020.3*, Table 4.1, 4.2, 4.5, 4.6과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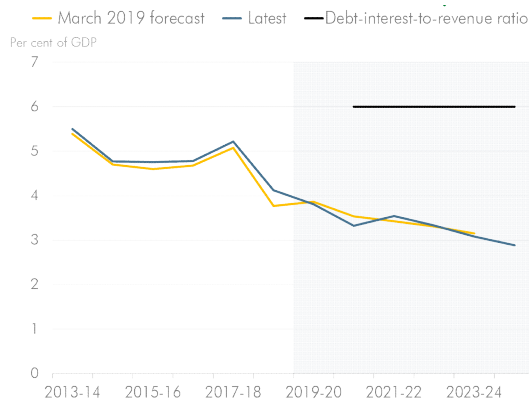
[그림 6] 경상예산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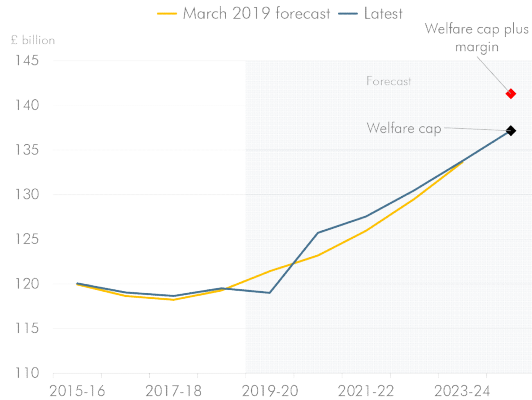
[그림 7] 공공부문 순투자



[그림 8] 세입 대비 채무이자 비율



[그림 9] 복지지출 한도



출처: OBR, *March 2020 forecast in pictures, 2020.3*.

## 2) 새로운 지출 검토

- 영국 정부는 '2020 포괄적 지출 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2020)'를 발표할 예정임
  - (개요) 포괄적 지출검토에서 FY2023-24까지의 3년간 자원 DEL 예산과 FY2024-25까지의 자본 DEL 자금을 설정
  - (일정) 당초 예산안에서는 2020년 7월까지 포괄적 지출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3월 24일,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포괄적 지출 검토의 일정 연기를 결정함<sup>28)</sup>
  - (주요 우선순위) 예산안에서 공개된 포괄적 지출검토의 우선순위 네 가지는 다음과 같음
    - 인프라, 혁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 전체와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제고
    - NHS 지원, 범죄 감소를 위한 조치, 모든 청소년에게 최상의 교육 제공 등 공서비스 성과 개선
    - 세계에서 영국의 위상 강화
    - 탄소 배출 감축 및 자연 환경 개선

---

28) HM Treasury,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2020 representations: guidance, 2020.3.3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rehensive-spending-review-2020-representations-guidance#history>